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5.12.05~2025.12.12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SAF 공급 부족 심화에 2030 녹색연료 목표 달성 위기** (2025.12.09, 로이터)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글로벌 항공사들의 SAF 생산량이 정부 의무화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경고. 현재 생산설비 투자 규모로는 2030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이 항공 산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
	●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주도할 발전 부문의 성장** (2025.12.11, 블룸버그) Ember에 따르면, 유틸리티 배터리 비용이 40% 급락하며 태양광 및 ESS 발전 단가가 크게 감소. 이는 화석연료 발전과 직접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가격 하락세는 '26년까지 지속될 전망. 이들은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낮 시간대에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변모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시사
Government	● **중국 해외 그린에너지 투자 $80B 육박** (2025.12.09, MSN) 중국의 올해 해외 그린에너지 투자 약정금액이 $80B를 기록. 이는 직전 2년합계 금액에 육박하는 급증세.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ESG 정책과 무역장벽을 기회로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 및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
	● **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할 것** (2025.12.10, ESG News)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1990년대비) 목표에 대한 잠정 합의 체결. 다만 현실적 상황 감안해 탄소배출권으로 대체 가능한 감축분을 3%p→5%p로 확대했으며, 난방/수송용 연료의 탄소시장 도입 시기는 '28년까지로 1년 연기
Corporations	● **Meta, AI 전력 확보 위해 NextEra와 계약체결** (2025.12.09, ESG Today) Meta가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 NextEra와 총 2.5GW 규모 청정 에너지 계약 체결. 이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ESS 등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빅테크 변화를 증명
	● **우버,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 중단** (2025.12.10, Bloomberg) 우버가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제공했던 운전자 인센티브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 일련의 결정은 동사 탄소 배출량이 지난 3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점과 괴리됨. 사측은 기후 변화가 팀워크임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 강조
Funds	● **유엔 PRI, 연간 필수 보고서 질문 항목 축소** (2025.12.09, Top100Funds)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이 내년부터 주요 기관의 연간 필수 보고서 질문 항목을 240개→40개로 대폭 축소 예정. 해당 조치는 ESG 보고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한 점을 인식한 결과. 구체적으로 자산군 및 전략별 세부 질문을 제외하고, ESG 통합 및 거버넌스 분석 등 핵심 항목에 집중하는 방식
	● **미국 주요 연기금, 지속가능투자 안정적 흐름** (2025.12.09, P&I) 미국 주요 연기금이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됨. US SIF 2025/2026 Trend Survey에 따르면, 미국 전체 운용자산 중 지속가능 및 ESG로 분류되는 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 번외로 향후 3년간 가장 성장 여지가 큰 영역은 Impact Investment, ESG Integration 등
	● **스웨덴 AP7, 투자 제외 대상 기업 추가** (2025.12.11, AMWATCH) 스웨덴 연기금 AP7은 기후 요건을 근거로 35개 기업 편출 예정. 구체적으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하기로 결정. 일례로 인도의 Bharat Electronics가 떠오름. 해당 기업은 미얀마 군사정권 연루 논란이 존재. 군부 쿠데타 당시 해안 레이더 장비 및 통신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